



第3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 장안 골 편사놀이

일시 : 1992. 9.23~9.25  
장소 : 경북 구미시 시민운동장

서 울 特 別 市

## 장안 골 편사(便射)놀이

弓矢는 선사시대에서 부터 있었던 것으로 외침이 있을때나 나라를 방어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평화 시대에는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기구로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오늘날 양궁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조 임진왜란 후 선조대왕께서 국민의 尚武心을 진흥하기 위하여 경복궁 동쪽 담장안에 오운정을 만들어 민간의 習射를 장려한 후 인조시부터 숙종시까지 무과시험을 자주 시행함으로서 도성 안팎에 우후죽순처럼 오십여 사정이 생겨나 사정 상호간 교류와 친목을 도모코자 편사가 성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안 골 편사놀이는 인조때부터 유래되었는데 활쏘는 선비들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유희로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봄 가을로 거행되어 왔으나 한일합방후 일본의 우리 문화 말살정책으로 1920년 후반기에 맥이 끊겨 구전 만으로 전해 오던중 해방후 당시의 한량이신 장석후옹(92세)께서 경기및 인천지방에 편사를 재현하였으나, 많은 것이 변형되어 오다 본 경연 대회 참가를 계기로 1928년 이중화저 조선 궁술 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의 궁술」초간본의 기록과 정병호 문화재위원, 장석후옹(당92세)및 권무석(당50세)씨, 황학정 궁사등 여러 사람의 증언과 자문에 의하여 72년만에 장안 골 편사놀이의 원형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당시 민간사정인 장안 골  
24亭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으며  
그중 1亭인 아래대(下村)左龍亭  
성벽각자가 현재도 남아 있다.

- 西 村 : 梨花亭
- 東 村 : 栗木亭, 思泮亭
- 慶熙宮 : 慶雲亭
- 上 村 : 白虎亭
- 下 村 : 石虎亭
- 西大門外 : 盧知事亭
- 江 郊 : 楓碧亭
- 南 村 : 細松亭, 青龍亭
- 北 村 : 一可亭, 興武亭, 翠雲亭
- 우대오터 : 風嘯亭, 登龍亭, 登科亭, 雲龍亭, 大松亭
- 아래대네터 : 石虎亭, 左龍亭, 華龍亭, 梨花亭
- 其 他 : 雙碧亭, 同樂亭



## 1. 입장(入場)

- 양팀의 군막, 도청(道廳), 활터 등을 설치하면서 대표기, 영기, 서울장안 24정의 기, 삼현육각, 농악등을 앞세우고 입장한다.



## 2. 제사(祭祀)



고사를 행하는데 제물은 청주, 삼색  
과실, 찹쌀 시루떡, 소머리나 돼지  
머리를 풍부히 준비하여 낫이라도 초 한  
쌍을 켜고 노련한 사원 일인을 제관으로  
하여 사례식을 행한 후에 소지 백지  
24장을 준비하였다가 1장은 부정 소지로  
1장은 수띠 소지로 나머지 22장은  
응사원 22인의 소지로 기도한 후에 사원  
1인이 시지를 펼쳐놓고 수띠의  
획창(獲唱)을 세 번하고 거기(舉旗)도  
세 번하고 종띠 획창(獲唱)도 세 번하고  
고사를 다지낸 후 제물을 일반 사원이  
음복하고 밀초 나머지를 24절에 분하여  
수띠 이하 응사원 24인의 밀피소용으로  
쓰게 하였다.

### 3. 편사(便射)

- 본정에서 궁사1인이 나서서 무검을 향하여 길고 높은 목소리로 “정순간다”하면 각 정 거기(舉旗)는 일제히 기를 들러서 응답하는데, 각 팀 주장이 먼저 쏜후 차례로 정순을 시작한다.
- 과녁을 맞추는 때에는 거기(舉旗) 한량은 각기 자기팀 궁사의 맞추는 것을 따라 기를 흔들며 장족한량은 맞춘곳을 표시하고 획창(獲唱) 한량이 소리를 치면 기생들은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서서 목소리를 같이하여 “○○서방님 일시에 관중이오”하며 획창(獲唱)한후 지화자를 부르는데 타령조를 쳐서 풍악 곡조와 지화자 곡조가 서로 조화되어 일반 궁사들의 홍을 돋군다.



## 4. 화합(和合)

○초재삼의 삼순합시수를 계산하여  
이기고 지는 것을 정한다. 만일 시수가  
같으면 먼저 활쏘팀이 반회를 감하는  
사풍을 쫓아 지는 것으로 하는데 이는  
손님을 대접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이  
다.

○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궁사들과 구경꾼들이 한데 어울리어  
여흥을 즐기며 대동화합을 이룬다.



## 考證·演出·指導

### ○고 증

- 정병호 : 문화재 위원
- 장석후 : 황학정 교장
- 권무석 : 황학정 사범
- 최귀남 : 대한궁도협회 초대 태극 명궁

### ○연출·지도

- 정인삼 : 풍물보존회 고문
- 홍성학 : 풍물보존회 회장

## 出演人員

- ① 악 사-6명
- ② 농 악-30명
- ③ 기 생-5명
- ④ 도청(道廳)-2명
- ⑤ 획관(獲貫)-2명
- ⑥ 획창(獲唱)-2명
- ⑦ 장족(獐足)-2명
- ⑧ 거기(舉旗)-2명
- ⑨ 궁 사-24명
- ⑩ 기 수 -10명
- ⑪ 타궁사-10명